

번역 텍스트 내의 정치적 내러티브 리프레이밍 - CNN의 ‘아랍의 봄’ 보도 번역을 중심으로

김 순 미
(숙명여대)

1. 서론

번역학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었으나 기본 명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번역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관점, 이해관계, 지위가 유사한 언어 간에 이루어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행위라는 전제이다. 그러나 “번역은 순진하고 투명한 행위가 아니라 매 단계마다 긴장과 갈등이 넘치는 행위이며 동등한 입장의 텍스트, 저자, 혹은 시스템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Bassnett and Trivedi 1999: 2). 다시 말해 번역이 이루어지는 두 개의 사회 간에는 권력의 불균형과 이해관계, 가치관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언어 간 번역풍토, 번역물량, 번역방법, 번역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같은 거시적 측면은 많은 경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문화적 전환에 앞서 텍스트의 선정이나 구조와 내용, 형식

을 결정한다.

번역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말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리적인 대치나 폭력, 식민·제국주의 상황, 즉 한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억압하여 자신의 의지나 이해관계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협박의 갈등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의 이데올로기 연구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이해관계의 차이, 혹은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인해 서로의 입장을 약화 시키려 하는 상황”(Baker 2006: 1), 즉 우리가 사고하고 생활하는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광의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 역시 광의의 관점에서 권력과 갈등을 다루고 있으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회나 집단의 사고와 신념, 믿음, 이념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러티브 이론(narrative theory)에 근거해 번역과 이데올로기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러티브는 무엇인가? ‘스토리’, 혹은 ‘이야기’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내러티브는 “세상을 드러내 보여주는(represent) 것일 뿐 아니라 세상을 구성(constitute)하는 요소”(Baker 2006: 5)이다. 이는 특히 사회 내·외적 갈등을 설명할 때 유용한데 그 이유는 내러티브는 “사회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갈등을 조장, 유지, 중재, 재현 하는 중요한 도구”(Briggs 1996, Baker 2006: 3 재인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번역 또한 텍스트를 다루는 업무로서 내러티브의 형성과 변화를 통해 사회 내에 갈등을 유포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언어(SL) 제도권의 갈등과 권력 체계가 번역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려면 원천텍스트(ST)와 목표텍스트(TT)에서 내러티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비교·분석 하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가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프레임 되는지 분석하는 과정이야말로 번역과 이데올로기, 권력의 이해에 효과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권력의 역학관계를 번역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보고 국가, 혹은 집단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번역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실제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분석 텍스트는 2011년도부터 시작된 소위 ‘아랍의 봄’(Arab Spring) 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랍혁명에 대한 CNN보도에 대한 중앙 데일리(Joongang Daily) 한국어 번역본¹⁾을 중심으

1) www.cnn.joinsmsn.com에서 보도하던 CNN뉴스번역은 내부사정으로 2013년 1월 31

로 이루어진다. 특별히 아랍의 시민혁명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미국이 그동안 아랍 국가들과 갈등관계나 국익에 기초한 우호관계를 맺어 오면서 정부나 기관 차원에서 수많은 내러티브를 만들어 “사람들의 합리적 사고, 객관성, 도덕성,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관한 개념화 과정에 결정적 영향”(Bennett and Edelman 1985, Baker 2006: 19 재인용)을 미쳤기 때문이다. 특히 911 테러부터 이라크전 시기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neocon)²⁾들의 보수적 정책, 사우디, 이집트 등 친미 아랍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석유를 둘러싼 헤게모니 쟁탈전 등을 통해 미국인들이 이슬람권을 보는 정형화된 내러티브(stock narratives)가 많이 생성, 유포되었다. 이에 반해 한국의 아랍에 대한 입장은 석유나, 건설 등 경제적 측면 중심이었고 최근 들어 기독교 선교로 인해 갈등이 있었지만³⁾ 그 이외에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는 크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런 이념적, 정치적 차이가 결국 미국 뉴스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 하에 번역가, 혹은 번역 기관에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리프레임해서 새로운 내러티브를 만들었는지 보려고 한다. 논문의 구성은 첫 번째로 ‘번역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발

일 중단되었다.

- 2)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 또는 단순히 네오콘(neocon)은 1970년대에 생겨나서 8-9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미국의 정계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치의 흐름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시기부터 미국에서 주로 쓰이는 공화당의 노선이 되었으며 기독교적인 교리와 친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정치노선이었다. 네오콘은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퍼뜨리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군사정책 및 외교 정책에 있어서 신현실주의 노선을 취한다. 또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인류보편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여 계몽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로는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도널드 럼스펠드 등이 있다.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C%98%A4%EC%BD%98>

- 3) 한겨레신문 온라인 오피니언 사이트 Hook 「원유·건설에만 치우친 대중동정책 대수술해야」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경제적 실익과 원유 수입 및 중동 건설업 진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으로만 중동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다 보니 아랍 국가들의 국가체제 특성, 정치적 상황, 문화적 특수성 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결과 근래에 들어서는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http://hook.hani.co.kr/archives/24594>

전과정과 내러티브 이론, 프레임링 이론 등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고, 두 번째로 미국과 아랍 간, 한국과 아랍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CNN을 비롯한 미국 언론의 보도성향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과 권력관계 이론 발전 모습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번역학계 내에서 번역과 권력이나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론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번역학 연구의 초창기에는 번역은 원문의 언어적인 내용을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 측면에서 바꾸어 전달하는 언어적인 변환이며 번역가는 원문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는 텍스트 중심적 사고가 확고히 자리 잡았고 많은 반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번역학의 주된 관심은 직역, 의역, 등가, 텍스트 분류와 같은 개념을 적용한 텍스트 내부 연구에서 점차 발화자, 수신자, 발주자, 권력, 이데올로기와 같은 텍스트를 둘러싼 외부시스템과 참여자에 관한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도희진 2008: 27).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접어들며 단순히 텍스트 차원이 아니라 번역을 둘러싼 거시적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번역을 조망해야 한다는 관점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마련한 이론은 폴리시스템(polysystem), 혹은 다체계 이론으로 이븐 조하(Even Zohar)나 뚜리(Toury) 같은 학자들은 번역을 하나의 텍스트가 아닌 집단적 관점에서 연구했는데 번역 과정의 뒤에 있는 후원자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조망, 번역물이 속한 사회의 역동적 다체계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번역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점에서 구조적(structuralist), 거시적 차원의 연구 기틀을 마련하였다. 번역을 문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르페베르(Lefevere) 또한 이들과 맥을 같이 하는데 번역은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시학(poetics)에 의거해 새롭게 쓰이는 조작적 행위라는 ‘다시쓰기’(rewriting)⁴⁾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번역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도착어

4) “번역과정은 원문과 동일한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도착문화권 내에서 일정한

권 문학 시스템의 형식적 규범까지 연구 영역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이들 이론조차 번역이 이루어지는 양쪽의 권력구조보다는 번역물이 생성되는 사회, 즉 도착어권 만의 구조와 기대, 기능, 규범 등에 집중하는 이론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⁵⁾.

이같은 단편적인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베누티(Venuti)로 그는 중심(center)과 주변(periphery)의 개념을 도입하여 미국과 같은 중심국과 주변국들 간의 번역량의 차이와 번역 전략, 출판풍토에 비판을 하면서 번역이 이루어지는 두 언어권 간의 세력 불균형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Robinson 1997: 33). 이와 함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번역학에서 더 새로운 연구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번역을 탈식민적 구조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이 새로운 기조는 사실상 번역학자들이 아니라 탈식민구조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등 사회와 다른 사회 간의 교류 과정을 연구하는 인접 학문에서 촉발되었다. 이들 학자들은 사회 간 교류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것은 번역을 매개로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양쪽 언어권의 정치, 사회적 역학관계 안에서 번역의 역할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탈식민적 입장에서 번역은 제국의 편에서는 식민화를 정당화하고 피지배인을 억압하는 필수도구였고, 피지배국에게는 근대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수단이자 저항의 도구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로 인해 번역학계에서도 번역은 같은 정도의 권력을 가진 동등한 언어 간에 이루어지는 순진한 언어적 전이가 아니며 어느 한쪽이 더 큰 체계모니를 가지고 있거나 가치관이나 이해의 갈등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조작 행위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2.2 번역과 갈등을 분석하는 베이커의 내러티브 이론과 프레이밍

2.2.1 내러티브 이론

베이커(Baker)는 번역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언론, 사회학, 정치

한 이데올로기와 시학의 영향을 받는 번역자가 도착 독자를 의식한 상태에서 하는 해석과정인 것이다”(손나경: 65).

- 5) 기능주의자들은 “번역의 목적에만 집중할 나머지, 번역의 참여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관계가 존재하며 번역 행위가 이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도희진: 28).

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과 역사학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러티브 이론을 도입했다. 내러티브는 특정 장르, 즉 문학, 전래 동화 등의 장르에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수사적(rhetoric) 방법이라는 언어학적 접근법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내러티브는 과학기술 텍스트까지 포함하는 모든 장르”(Fisher 1987: 85 Baker 2006: 9 재인용)의 텍스트를 통해 재현되는 ‘이야기(story)’라고 보고 있다. 사회적,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내러티브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방식”(Baker 2006: 9)이며 “우리는 내러티브를 통해 사회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규정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한다”(Somers 1992: 600 Baker 2006: 9 재인용). 다시 말해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 자신과 세계에 대한 개념을 세우고 이에 의거해 세상을 보며 또 행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의 내러티브는 우리가 그것에 의해 살아가는 매일 매일의 이야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베이커가 이용한 내러티브 이론의 틀을 따르고 있는데 내러티브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즉, “과학기술 관련 사건들을 포함하여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라도 서로 간에 일정한 관계와 순서가 있으면 서로 조합하여 서론, 본론, 결론 구조로 만들고 이를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다”(Landau 1997: 104, Baker 2006: 9-10 재인용). 결국 개인이나 단체, 국가 등은 언제나 일련의 사건을 조합하여 자신이 원하는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내러티브가 실제 세계에서 벌어지는 행동과 사람들의 입장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런 문맥에서 내러티브의 구성에는 항상 개인의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 매우 위협적일 수 있다.

번역가가 알아야 할 내러티브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내러티브를 내러티브답게 만드는 속성은 무엇일까? 베이커가 요약⁶⁾한 소머즈와 김슨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omers & Gibson 1994).

1. 부분들 간의 관계성(*relationality of parts*): 인간의 마음은 각각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 사건들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된 사건들은 내러티브 안에서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번역가는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그것이 포함된 전체 내러티브를 생각해야 한다.

6) <http://ceviribilim.com/?p=491> “Reframing Narratives in Translation” 2007.3.7

2. 인과관계가 있는 플롯(causal emplotment): 행위자들은 내러티브를 통해 원래는 관련성 없는 집단적 명제를 거기에 의거해 행동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도덕적, 윤리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알아보기 쉬운 플롯으로 만든다. 일련의 사건 중 특별히 어떤 것에만 비중(weighting)을 두고 조명하여 플롯을 만드는 것으로 사건의 세부 사항보다는 어떤 것에 비중을 크게 두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송연석(2011)의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번역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부분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3.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 세상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자신이 가진 평가 기준에 의거해 특정 사건들만 선별하여 내러티브를 만들어 간다. MEMRI(the 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가 이스라엘의 입장을 옹호하는 텍스트만 선택하여 번역하자 ‘차별에 항거하는 아랍인들’(Arabs against Discrimination)이라는 단체가 아랍측에 유리한 텍스트,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인종차별적 행위를 파헤치는 텍스트를 주로 번역한 것이 각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텍스트만 선택적으로 전용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Baker 2006: 75-76).

4. 시간성(temporality): 내러티브는 특정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며 시간성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즉 어떤 식으로 시간적 배열을 하느냐, 사건이나 인물들이 어떤 순서로 등장 하는가 등은 그것을 어떻게 배열 하는가 자체가 구성상 큰 의미가 있다.

이 속성들을 종합해 보면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이며 그것을 구성하는 사건들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 안에 잘 배치되어야 할 뿐 아니라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수많은 텍스트 안의 내러티브들이 어떻게 분류되며 그 중 본 논문의 분석 텍스트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소머즈(Somers)와 깁슨(Gibson)의 분류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유포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존재론적 내러티브(ontological narratives)로 개인사나 삶을 규정짓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두 번째, 공적 내러티브(public narratives)로 국가, 종교/교육 단체, 가정 등 사회 기관에서 만들어 유포하는 이야기이다. 세 번째

는 개념적 내러티브(conceptual narratives)로 학자들이 연구하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나 설명 등인데, 이 또한 다른 공적 내러티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 번째는 메타 내러티브(meta narratives)로 자본주의 대(對) 공산주의, 문명 대 자연, 개인 대 사회와 같은 우리 시대의 거대 담론이다. 본고의 분석 텍스트인 CNN기사는 뉴스라는 성격상 공적 내러티브나 메타 내러티브의 영역에 속하리라 가정할 수 있다. 이제 텍스트 안에서 내러티브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는지 보기 위해 프레이밍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2.2 프레이밍 이론

번역가가 번역 업무를 맡은 경우 자신, 혹은 번역을 발주한 기관의 내러티브와 원문 저자의 내러티브가 일치할 수도 있겠지만 원문의 내러티브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번역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번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문에 내재되어 있는 내러티브를 강화, 약화, 변화,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과학에서 프레이밍의 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1974년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이 쓴 『프레임 분석(Frame Analysis)』에서이다. 고프만은 개념적 프레임(conceptual frame)이 사람들이 사회를 보는 인식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프레임이 외부 현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험을 조직화한다고 보았다(Goffman 21). 또한 일반인들을 위해 프레임을 사진들에 비유해 설명했다. 어떤 장면을 구조적 사진틀 안에 넣으면 의미 없는 장면이나 경험들이 의미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프만의 프레이밍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 즉 사회를 보는 개인적 ‘해석’ 작업이지 남을 위해 의도적,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번역가는 독자들을 위해 프레임을 중재해야 하기 때문에 고프만의 이론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번역가의 역할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프레이밍 이론은 사회운동(social movement) 분야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그들은 “프레이밍은 능동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signification) 과정으로 프레임은 특정 관점으로 사회적 움직임이나 집단의 입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의식적

7) http://en.wikipedia.org/wiki/Erving_Goffman

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적 움직임(strategic moves)”(Baker 2006: 106)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프레임링 과정은 매우 역동적이고 조작적이어서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사회운동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감하고 이에 동참할 수 있게까지 만들 수 있는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Cunning and Browning 2004, Baker 2006: 106 재인용). 이는 프레임 이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는 언론에서의 ‘프레임링’에 대한 정의와 유사한데, “프레임 구축(frame building)은 선택, 강조, 축소, 배제 등을 통해 대상의 특정 속성이나 현실의 특정 측면을 두드러져 보이게 함으로써, 현실 문제를 정의하고 인과 관계를 해석하며 도덕적 평가를 내리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을 의미한다(이민용, 운영철 외 2004; Entman 1993; Gitlin 1980; Tuchman 1978 사회만 2005: 7 재인용). 어떤 정치적 사회적 움직임이나 사건들에 대해 매스미디어에 의해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해석을 만드는 일 혹은 여론조작을 말하기도 한다⁸⁾.

그렇다면 번역가는 내러티브를 어떻게 프레임링할 수 있는가? 번역에서 프레임링이 이루어지는 방법 중 중요한 것은 프레임 모호성, 시간적 공간적 프레임링, 선택적 전용, 이름짓기를 통한 프레임링, 곁텍스트(paratext) 이용 등이 있다. 이는 언어외적 요소, 즉 억양, 색채, 이미지, 시각 효과 등을 이용해서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시제 변화, 직시(deixis), 부호 변경(code switching), 완곡어법 사용 등 언어적 요소를 사용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Baker 2006: 111).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레임 모호성’(frame ambiguity)은 일련의 같은 사건들도 갈등관계에 있는 상반되는 내러티브를 조장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식으로 프레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갈등관계에 있는 행위자들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이는 입장에 따라 전쟁, 내전, 게릴라전, 시위, 테러행위, 민주화 운동 등으로 다르게 프레임 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프레임 하느냐는 연관된 당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제 침략에 대해 일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프레임하고 있는데 최근의 예로 2013년 4월 23일 아베 일본 총리는 참의원에서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며 “국가간의 관계에

8)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A0%88%EC%9D%B4%EB%B0%8D>

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⁹⁾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각각 어떤 식으로 프레임링을 하느냐에 따라 스스로의 행동과 남을 보는 인식이 달라진다. 번역가는 정의가 모호한 상황을 더 명확하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으며 더 모호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다(Baker 2006: 107).

두 번째 ‘시간적 공간적 프레임링’(temporal and spatial framing)은 “특정 텍스트를 선정하여 그 안에 내포된 내러티브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시간이나 공간적 맥락에 삽입하여 그 내러티브와 현재 통용되는 내러티브 사이의 연관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112)이다. 번역의 예로는 스탠디시 오그레이디(Standish O’Grady)가 1878 아일랜드의 전사인 쿠 홀린(Cu Chulainn)의 전설을 번역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는 전투 장면에서 쿠 홀린이 흉포한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을 거의 생략하고 각주에 한 줄로 ‘그의 몸집이 커졌다’라고 번역했다. 그의 의도는 그 당시 영국인들이 아일랜드인에게 가지고 있던 폭력성, 야만성에 대한 선입관을 자신의 번역 텍스트 안에서 더 강화시켜주지 않기 위한 것이었다(Tymoczko 1999: 22-23). 위의 사례는 특정 시간에 특정 번역을 하게 되면 프레임링을 통해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번역가가 얼마나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 ‘선택적 전용(selective appropriation)’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원문에 내포된 내러티브의 특정 부분을 강화, 약화, 미화하기 위해 생략이나 추가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텍스트의 전용을 말한다”(Baker 2006: 114). 거시적으로 볼 때는 한 번역 기관에서 원하는 텍스트를 선택하여 번역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시적으로는 한 텍스트 내에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강조하거나 생략하여 번역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네 번째 ‘이름붙이기를 통한 프레임링(framing by labelling)’은 “특정의 사전적 어휘나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 장소, 단체, 사건 혹은 내러티브의 다른 요소들에 정체성을 부과하는 추론적 과정(discursive process)”(122)이다. 예로 좌파 정치를 칭하는 표현인 ‘진보’(progressive)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이는 개선·전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파는 퇴

9)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4/23/0503000000AKR20130423182251073.HTML>

보·후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측에서 스스로를 ‘pro-life’(친생명)라 칭하는 것도 긍정적인 의미를 주려는 의도를 내포한다.¹⁰⁾ 인명이나 지명도 객관적인 명칭과 특별히 강한 내러티브가 내포된 두 가지 명칭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뉴욕과 ‘Big Apple’, 라스베가스과 ‘Sin City’, 디트로이트와 ‘Motor City’ 등이 있는 경우, 어떤 명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러티브를 프레이밍 할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결텍스트를 통한 프레이밍’이 있다. 번역가는 책 커버나 외부로 드러나는 요약문 등, 역자서문이나 후기, 역주, 각주 등 텍스트 내의 결텍스트¹¹⁾ 이용해서 자신의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 이같은 결텍스트는 번역가들이 독자들에게 자신이 특정 내러티브를 강화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다¹²⁾는 장점이 있다.

이제 본고의 분석 텍스트인 아랍어권에 대한 뉴스가 원천언어인 영어에서 어떤 내러티브로 구성되었으며 목표언어인 한국어권에서는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를 양국의 아랍과의 관계와 보도 성향을 통해 알아보겠다.

3. 한국, 미국, 아랍간의 관계와 아랍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 성향

3.1 한국, 미국, 아랍의 관계

한국과 미국의 아랍과의 관계나 관점은 두 국가의 정치적 입장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텍스트에서는 이들 관계가 내러티브 형성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먼저 이집트 무바라크와의 관계, 리비아 카다

10)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A0%88%EC%9D%B4%EB%B0%8D>

11) 결텍스트는 “텍스트를 둘러싸고 그것을 연장하면서 텍스트를 소개하고 그것이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지영래, 박선희 2010: 247).

12) 『보바리 부인』의 초기 번역본들에 “역자 서문이 실려 있다는 사실은 번역자가 자신의 작품 번역에 개입하던 정도의 책임감이 컸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지영래, 박선희 2010: 257).

피와의 관계와 아랍 시민 혁명을 보는 관점 등 세 가지 주제로 양국의 입장을 알아보겠다.

첫 번째 무바라크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25일자 연합 뉴스 “美, 이슬람주의 이집트 새 정부와 관계 고심”¹³⁾이나 중앙일보 보도¹⁴⁾에 의하면 미국은 세속주의 정권의 독재자 호즈니 무바라크와 맹방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미국과 이집트의 강고한 동맹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는 초석이었다. 무바라크는 30년간 독재를 유지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깨라는 이집트 국민들과 여타 아랍국가들의 술한 압력을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해왔다. 이를 볼 때 미국 입장에서는 무바라크를 단순히 독재자로 치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¹⁵⁾. 이에 반해 한국과 이집트, 혹은 무바라크 대통령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교역량이 큰 것도 아니었고, 정치적이나 인적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¹⁶⁾ 이어서 무바라크의 30년에 걸친 철권통치에 대한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카다피와 관계에서도 미국은 한국과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다. “카다피는 국제관계 경색을 타파하기 위해 2000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자 이라크와의 외교를 단절함과 동시에 서방 국가에 개방을 선언하고 화해 정책을 썼다. 2003년 대량살상무기(WMD) 포기 선언 후 2004년에는 대미외교관계 복원에 힘써, 미국은 2004년 리비아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리비아에 적용한 경제 제재를 해제했다. 2006년에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했다.”¹⁷⁾

13)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93790

14)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764277

15)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6월 이집트 방문을 앞두고 BBC와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무바라크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가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척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http://www.bbc.co.uk/blogs/thereporters/justinwebb/2009/06/an_interview_with_president_ob.html

16) 한국일보 인터넷 판 2011. 2월 13일

호즈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하야한 이후에도 한국과 이집트의 양자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정부 당국자는 12일 “현재 군부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과도체제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와 이집트의 양자관계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2/h2011021216121521040.htm>

2008년 미 국무부 손 맥코믹 대변인도 “리비아는 미국과는 물론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발전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방 지도자들은 카다피를 ‘지역의 실력자’로 부르며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리비아의 석유 자원 수입, 유전 개발과 각종 건설 투자, 무기 수출로 돈벌이에 나섰다. 리비아 미국 영사관 습격사건으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를 비롯한 미 정부 관계자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친서방지도자 없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향후 리비아와의 관계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로 이번의 아랍 시위를 ‘민주화’ 과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¹⁸⁾. ‘혁명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된다는 점’에서나 ‘교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 ‘서구와 다른 이슬람 사회의 특징’ 등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아랍에 불고 있는 민중 운동을 일단 독재정치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정의내리길 주저하지 않는다. 4·19 혁명, 유신반대 운동, 광주민주화 운동 등 최근까지 격렬한 민주화 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이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화’의 정의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했던 한국 사회는 나름대로 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고 이번 ‘아랍의 봄’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본 것으로 이 문제 또한 미국과는 입장 차이가 크다 할 수 있다.

3.2 CNN의 보도 성향

뉴스 보도 기관은 각각이 처한 입장과 목적에 따라 보도 성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CNN뉴스¹⁹⁾는 1980년 테드 터너(Ted Turner)가 설립한 미국의 24

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4/2007082400113.html

18)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진보적 지성인 노암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교수는 2011년 3월 암스텔담에서 한 강연에서 미국은 민주주의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히려 아랍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동의 전략적 가치 때문에 이 지역의 민주화 사태에 개입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19) CNN 온라인 뉴스는 중앙일보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번역기사는 원문기사에 링크되어 버튼 클릭만으로 두 언어의 텍스트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CNN 한글 뉴스는 인터넷 뉴스의 장점인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 “편리하다”, “특정

시간 뉴스 전문 채널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Atlanta)에 본부를 두고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의 포격을 당한 이라크 내에서 전세계에 생생한 보도를 함으로써 3대 메이저 방송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뉴스 채널로 부상하게 되었다. 보수적 폭스 뉴스와 진보적인 MSNBC 사이의 중도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현재 미국에서 중도적 성향의 뉴스 매체는 객관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²⁰⁾. 결국 시청률 저조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 케이블뉴스는 점점 단순한 사실 보도 기사에서 앵커의 논평과 해석이 담긴 기사로 옮겨가고 있다. 언론은 항상 객관적인 사실만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선동적이기까지 한 폭스뉴스나 진보적 MSNBC와 비교하여 중도, 객관적이긴 하지만 CNN도 중동 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위키피디아²¹⁾에 의하면 CNN의 미(美)국내보도는 ‘진보(liberal)’, ‘반미(anti-American)’ 성향이라는 비난이 있는 반면 국제보도 특히 중동관련 보도는 ‘보수’, ‘친미(pro-American)’ 성향이란 비난이 많다고 한다. 이는 2003년 3월 20일에 시작 되어 43일간 지속된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CNN과 BBC의 보도 성향과 대표적인 아랍권 언론인 알자지라의 보도를 비교한 「아랍어 위성방송 알자지라와 BBC 및 CNN 비교 연구」에 잘 드러나고 있다.

CNN은 미영 연합군이 작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주로 방송했다. 이는 미

이슈를 계속 볼 수 있다”,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특징을 두루 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문 기사와 번역기사 간의 링크를 통해 뉴스 구독과 함께 영어 학습을 원하는 독자들에게는 외국어 교육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강지혜 2008: 10).

20) 동아일보 인터넷판 2012년 6월 14일 “미국에선 넘버3”...CNN 시청률 재앙

<http://news.donga.com/3/all/20120614/47015409/1>

한국일보 인터넷판 2013년 1월 30일자 “미국 CNN 뉴스 내용 형식 확 바꾼다” 한국일보에 의하면 “시청률 조사 기관 닐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CNN의 주중 황금시간대 평균 시청자는 76만3천명으로 폭스 뉴스의 250만 명과 MSNBC의 110만 명에 크게 못 미친다. 폭스 뉴스와 MSNBC는 주요 사안이 발생하면 우파나 좌파 논객을 출연시켜 맘대로 떠들게 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http://news.hankooki.com/1page/world201301/h2013013018022122470.htm>

21) <http://en.wikipedia.org/wiki/CNN>

국의 전시보도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2003년 이라크전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아니다. 이런 보도 관행은 저널리스트들이 그들 나라의 궁극적 이해에 기초해 국제 뉴스를 선택하고 보도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모든 뉴스 가치 중 자민족주의(ethnocentrism)가 전쟁 보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Yang, 2003)는 점과 관련이 있다. CNN의 보도 중 “연합군은 매우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바그다드에 입성할 때 이라크 시민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이라크 남부의 저항세력들은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이라크 도시들에 떨어진 폭탄들은 모두 이라크의 전략 무기 시설과 위성 장비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²²⁾와 같은 보도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사회만 외 2005: 18).

즉,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언론기관은 자신의 정부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이는 위의 보도 내용처럼 객관성을 지닌 중립적 묘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서 미국의 훌륭한 작전 수행에 대한 묘사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표적 아랍권 뉴스 매체인 알자지라는 이라크 공격에 대한 부당성과 이라크 국민들의 피해상 등 인도적인 측면을 집중 묘사하는 보도했다. 다음 자료를 보면 같은 사건을 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확연한 차이가 난다.

BBC와 CNN이 미국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건물들의 잔해나 파괴의 현장들을 집중 방영한 것에 비해, 알자지라는 미군의 공습으로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 간 이라크 민간인들을 취재했다. (중략) 이라크 민가가 미군의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고, 건물 잔해에서 딸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방송한 것도 알자지라였다. 또한 미군의 공습이 군사 시설물을 목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가에 떨어졌다는 적십자 자원봉사자들의 증언을 담기도 했다. (중략) 이것은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군들이 이라크인들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사회만 외 2005: 17).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고에서 분석하려는 CNN의 ‘아랍의 봄’ 관련 기사에서도 폭스뉴스와 같은 방송보다는 중도적이지만 여타 중동관련 뉴스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국익이 반영되는 보도를 하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22) www.robincmiller.com

4. 분석

4.1 텍스트 분석 방법

분석 대상이 된 CNN 기사를 주제별로 묶어 보았더니 튀니지 혁명으로부터 이어진 이집트, 리비아 내전 초에 이르는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기사가 16개, 카다피와 측근들이 수세에 몰리고 생포되는 순간까지 이르는 2011년 8월말부터 9월초 기사가 8개, 이집트의 시위와 그 이후 군부 장악 총선에 이르는 2011년 10-11월 기사가 7개, 재스민 혁명 주역들이 노벨상 수상후보에 올랐다는 기사 1개, 시리아 내전에 관한 기사 1개 등 총 34개의 ST-TT 쌍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우선 영문 기사와 한국어 번역본을 대조해가며 프레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골라내고 이어 새로운 프레임이 적용됨으로써 ST와 TT간 내러티브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살펴보았다.

CNN 뉴스 기사를 기본 분석 텍스트로 하고 있으나 한국어 번역 텍스트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프레임 전환 과정을 다른 언론사의 번역에도 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 한국판²³⁾의 번역문을 가지고 비교 분석을 2차로 해 보았다. 유사한 프레임 변화가 있다면 한국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와 프레임을 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CNN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와 번역문은 앞서 강지혜의 CNN 번역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영문과 한국어 본을 같이 볼 수 있어 편리하고 영어 공부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번역가가 적극적으로 인용, 생략, 정보 추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는 것이 분석에서 밝혀졌다. 언론사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추어 특정 부분을 인용 번역하는 경우에는 텍스트 선정에서부터 내용의 추가, 삭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나 이번 연구는 CNN이라는 한 방송사의 보도를 Joonang Daily에서 영어 학습까지 염두에 두고 꾸준히

23) <http://kr.wsj.com/home-page> 2010년 11월 블로그 형식으로 한국의 사회 및 문화 기사에 집중했던 한국어판 ‘코리아 리얼타임’을 선보인지 약 2년만인 2012년 10월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한국어판이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WSJ 한국판은 ‘온라인 뉴스 에디터’가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서 중요 영문 기사를 선정해 번역자들이 한글로 번역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번역하여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정리한 것이라 구조적 변화를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주제에 대한 많은 양의 연구 자료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고 번역의 품질이 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보도와 학습을 겸한다는 장르적 특성상 어느 정도 중도적인 번역문을 연구함으로써 아랍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의 대표적 성향을 볼 수 있고 그 프레임과 내러티브가 미국 언론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4.2 분석 결과

4.2.1 전체 프레임 변화 분석

CNN뉴스의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프레임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어 ST에서는 무바라크나 카다피에 대해 ‘longtime leader’라는 수식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장기집권’ 했다는 면을 부각시키며 ‘독재정치’의 측면을 약화시키는 프레임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국어 TT에서는 ‘독재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함으로써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들의 시위나 반군의 저항을 정당화하고 운동 전체를 ‘민주화 과정’으로 보는 내러티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프레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는 ST에 있는 정부군(친카다피 세력이나 친무바라크 세력)과 시민 간의 ‘clash(충돌)’ 프레임을 ‘유혈진압’ 프레임으로 바꾸어 정부측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정부군과 시민 사이의 충돌과는 달리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무력 충돌과 교전에 있어서는 단 한차례 ‘유혈진압’이라는 표현도 없이 ‘충돌’ 등으로 직역된 것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즉, 오직 순수한 시민들의 시위를 중심으로 ‘무력/유혈 진압’ 프레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ST에 있는 아랍의 봄 전체를 지칭하는 ‘uprising(시위)’, ‘revolt(반란)’, 등의 프레임을 ‘민주화’라는 프레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아랍의 봄이라는 거대 문맥을 완전히 재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프레임이라 할 수 있는데 아랍의 봄이라는 과정 자체가 아직 진행 중이고 프레임 모호성(frame ambiguity)이

존재하며 정의 내리기 복잡한 상황에서 다양한 프레임이 원문에 사용되는 것을 번역가는 ‘민주화’로 프레임 함으로써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하는 친독재 세력과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시민들이라는 내러티브를 완성하고 있다. 다음은 ST와 TT의 프레임 전환에 사용된 어휘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1】 ST와 TT의 프레임 전환에 사용된 어휘

대상	ST	직역	TT의 차이점
President Mubarak 무바라크 대통령	long-time president one of the longest serving ruler	장기 집권한 지도자 세계적인 장기 지도자	장기 집권한 독재자, 세계적인 장기 독재자 독재자 (dictator)
Colonel Gaddafi 카다피 국가원수	Libya's ousted leader, the fugitive Libyan strongman, longtime ruler the embattled Libyan leader	권좌에서 축출된 지도자 도피중인 리비아 실력자, 장기 집권한 지도자 궁지에 몰린 리비아 지도자	수세에 몰린 리비아 <u>독재자</u> 장기 집권한 <u>독재자</u> (dictator)
confrontation between police and protesters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과 진압	clash, violence, skirmishes, confrontation, bloodshed	충돌, 폭력 상황, 접전, 교전, 대치국면, 유혈사태	<u>유혈진압</u> (bloody crackdown)
Arab Spring 아랍의 봄	demonstration, uprising, revolution, revolt, protest	시위, 봉기, 혁명, 반란, 저항운동	<u>민주화 운동</u> , <u>민주화 봉기</u> (pro-democracy movement, pro-democracy uprising, democratization)

이를 ST와 TT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 【표2】 세 가지로 정리된다.

【표2】 ST와 TT간에 두드러진 프레임

ST	TT
longtime leader(장기집권한 지도자)	독재자(dictator)
clash, skirmishes(충돌)	유혈진압, 무력진압(bloody crackdown)
uprising, protest(시위, 봉기)	민주화 운동(pro-democracy movement)

위의 프레임 변화를 각각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4.2.2 ‘독재자’ 프레임

첫 번째로 영문 뉴스에는 총 45개의 뉴스 기사 중 ‘dictator’(독재자) 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카다피를 지칭하기 위해 Libya’s ousted leader(권좌에서 축출된 지도자), the fugitive Libyan strongman(도피중인 리비아 실력자), long-time ruler(장기 집권한 지도자), the embattled Lybian leader(궁지에 몰린 리비아 지도자) 등의 단어가 사용되었다. 무바라크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거의 long-time president, one of the longest-serving rule등 장기집권한 지도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대한 한국어 TT를 보면 권좌에서 축출된 지도자, 도피중인 리비아 실력자, 장기 집권한 지도자, 궁지에 몰린 리비아 지도자, 장기 집권한 호즈니 무바라크 전대통령 등으로 수식하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 경우도 많았으나 ‘독재자’ 카다피, ‘독재자’ 무바라크 등 표현도 많았다. CNN이 객관적인 보도를 위해 감정이 실리고 주관적인 단어인 ‘dictator’의 사용을 자제했으리라 분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 관련기사에서 김정일을 지칭하기 위해 미국 언론에서 ‘dictator’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차이이다. 아랍 독재자의 경우와 정반대의 현상이 드러난 북한의 경우를 분석한 강(Kang)의 연구에 따르면 “(영문) ST에는 김정일을 지칭하기 위해 the North Korean dictator(북한의 독재자), the ‘Great Leader’(위대한 수령동지) 등 부정적인 평가, 혹은 반어법을 사용해 강조하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 (한국어) TT에서는 이름이나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ST의 부정적인 견해를 희석시키고 있다”(229)고 했다. 오히려 ‘위원장’이라는 존칭을 붙여 준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대해 “북한 지도자에 대한 한국 언론의 호칭 사용법은 일관성이 없는데 이와 같이

관직명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관직명과 이름을 함께 쓰는 등의 여러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가는 뉴스가 보도되는 당시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Lee J 1997 Kang 2007: 229-230 재인용)고 설명했다. 강은 ‘북한의 독재자’라고 번역하기보다 ‘김위원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언어학적으로는 영어가 한국어보다 다양한 지시어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영어 텍스트에서는 독재자라는 사실을 텍스트에 미리 전제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라면, TT에서는 ‘김위원장’이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김정일의 공식 지위를 인정하고 합법화한 것”(230)이라 해석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후 햇볕정책이 기본 대북정책이 되면서 나타난 내러티브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 때 무바라크와 카다피 정권의 구조와 그들이 저지른 압제, 부정부패, 호화 사치, 폭력 등 상황이 있음에도 미국 정부가 그들과 시민 봉기 직전까지 형성한 유대관계를 고려할 때 영어로 된 ST에서는 ‘독재’라는 프레임을 적용해 그들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해야 하는 것이 내러티브와 프레임 구성의 당연한 이치라면 독재를 규정하는 미국의 프레임은 결코 객관적, 중립적일 수 없다. 그 이유에서 본 연구의 분석 텍스트에서 ST는 무바라크와 카다피를 ‘장기 집권한 지도자’ 혹은 ‘궁지에 몰린 지도자’ 등 두 개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어 TT에서는 그들을 시민을 억압하고 자신들은 호화롭게 살면서 경제를 파탄시킨 ‘독재자’로 보는 프레임이 등장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면 ‘longtime leader’가 독재자로 번역된 것과 ‘embattled Libyan Leader’가 ‘궁지에 몰린 리비아 독재자’로 번역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 예문 2개는 WSJ의 한국어 번역본으로 CNN번역본과 마찬가지로 ST에 없는 ‘독재자’를 추가한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뒤의 한국어 언론의 보도를 보더라도 ‘독재자’프레임은 아랍 지도자들을 보는 한국 언론의 주요 프레임임을 알 수 있다.

예1) CNN 보도

ST) Egypt's military dissolves Parliament, suspends Constitution

Egypt's military dissolved the country's Parliament and suspended its Constitution Sunday following the ouster of longtime leader Hosni

Mubarak, telling Egyptians it would be in charge for six months or until elections can be held. (omission) Mubarak stepped down Friday after 18 days of protests against his nearly 30-year rule and is now in the Red Sea resort of Sharm el-Sheikh. The longtime president was himself a product of the military establishment that has ruled Egypt since the 1950s.

TT) 이집트軍, 의회 해산...헌법 효력 중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전격 퇴진 후 이집트군은 13일(현지시간)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까지 6개월 동안 국정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30년간 통치해온 무바라크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 18일째인 지난 11일 퇴진했으며 현재 홍해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 있다. 독재자 무바라크는 1950년대부터 자신이 군 조직을 구성해 이집트를 통치했다. (2011.2.14)

예2) CNN 보도

ST) Libyan security forces switch sides as Gadhafi hangs on Embattled Libyan leader Moammar Gadhafi seemed increasingly cornered Sunday as security forces defected to the opposition in a town near the capital and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voted for tough restrictions on and possible war crimes charges against the Libyan regime.

TT)유엔, 리비아 제재결의안 의결

리비아 보안대가 27일(현지시간) 수도 트리폴리 인근 마을에서 반정부 시위대에 가담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정권에 대한 규제 강화와 전쟁범죄 혐의 가능성 조사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수세에 몰린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점점 궁지에 몰린 것 같다. (2011.2.28)

예3) WSJ 보도

ST)Egypt Court Orders Mubarak Retrial

A Mubarak lawyer said the decision will give defense attorneys the chance to exonerate the former leader, whose vast security apparatus brutally suppressed dissent during his() nearly 30-year reign.(2013.1.14)

TT)이집트 법원, 종신형 받은 무바라크에 재심 명령

무바라크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무바라크는 무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안보기구를 통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철권통치를 해온 독재자다.(2013.1.15)

예4)WSJ 보도

ST)Egypt's Constitutional Disorder

During the Mubarak era, the Muslim Brotherhood was the only tolerated opposition and was the sole organized political group to emerge after the revolution. Yet the Brotherhood can count on a core of no more than a quarter of Egypt's voters. (2012.12.26) ;

TT)이집트 새헌법이 불려온 위기

독재자 무바라크의 집권 기간 동안 무슬림 형제단은 하나뿐인 야당이었으며, 이집트 혁명 후 떠오른 유일하게 조직화된 정치 집단이었다.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은 소수의 지지만을 기대할 수 있다. (2012. 12.31)

같은 아랍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보도도 번역문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내용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조선, 동아, 중앙, 경향신문 등에 자주 등장하는 ‘독재자’ 프레임의 보도기사이다. 제목부터 ‘독재자’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기사 내용 전체를 이 프레임에 맞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 독재자 무바라크 닳아가는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

작년 ‘시민혁명’ 이후 선출된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이 혁명 이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을 닳아가고 있다고 현지 일간 알마스리알음 인터넷판이 2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2013년1월2일)

“독재자 무바라크 겨우 25년형?” 성난 이집트

지난해 ‘아랍의 봄’으로 물러난 이집트의 30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84)이 2일 법정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동아일보 2012년6월4일)

이집트 독재자 무바라크 건강 상태 악화...시민들 “약은 술책”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혐의로 지난 2일 25년형을 선고 받은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84 · 사진) 이집트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악화됐다고 7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중앙일보 2012년 6월 7일)

‘독재자 선배’ 무바라크 “유혈 진압, 아사드 사퇴하라”
 시민들에 의해 축출을 경험한 ‘독재자 선배’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83)이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46)에게 “학살을 중단하고 사퇴하라”고 권유했다. (경향신문 2011.8.18)

4.2.3 ‘유혈진압’ 프레임

두 번째로 달라진 프레임은 ‘유혈진압’ 프레임이다.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예5)처럼 ST에서는 ‘군대와 시민간의 충돌(clash)²⁴⁾’라고 한 ‘물리적 충돌’ 프레임을 ‘유혈 진압’ 프레임으로 바꾸어 둘 간의 ‘교전’ 측면보다 ‘정부의 일방적 제압’을 부각시킨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로 예6)에서처럼 ‘토요 일에 사망한’, ‘상황(situation)에 대한 우려’, ‘폭력(violence)이 난무하는’, ‘정부 측 행동(actions)’ 등 특별히 폭력을 가하는 주체가 어딘지 알 수 없거나 행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을 TT에서는 ‘유혈진압’이라는 구체적인 프레임을 설정해 ‘군대의 일방적 제압’ 부분을 강조한 경우이다. 이로써 TT에서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 세력을 친카다피, 친무바라크 군의 일방적으로 무력 진압하는 내러티브로 바꾸었다. 특히 예6)에서는 제목에서부터 ST의 ‘Benghazi now in the hands of Libyan protesters시위대가 뱅가지 점령’을 ‘리비아 유혈사태 확산...국제사회 우려 표명’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시위대가 공격하여 점령한다는 ‘공격자’ 프레임이 적용된 내러티브를 리비아 정부군이 시민들을 살상하여 유혈사태가 확산되고 국제사회에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피해자’ 프레임이 적용된 내러티브로 완전히 바꾸어 버렸다. 제목은 “번역에서 내러티브를 프레임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Baker 2006: 129)이기 때문에 이를 잘 사용하면 전체 내용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경우이다. 유사한 경우로 ‘Military police try to halt Cairo skirmishes’가 ‘이집트 최고 성직자, 유혈진압 중단 촉구’로 번역된 경우(2011.11.24일자) 도 ‘충돌’ 프레임에서 ‘진압’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정부측에서 충돌을 제지하려 한다는 내러티브가 오히려 유혈진압을 중단하라는 내러티브로 바뀌기도 하였다.

24) ST에서는 ‘clash’보다 정부군이 더 강압 진압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unleashed his soldiers on protesters’나 ‘crackdown’ 정도로 표현을 한 곳이 있었으나 이 역시 TT의 ‘유혈진압(bloody crackdown)’보다는 수위가 낮았다.

예5) CNN 보도

ST)On state-run TV, the government said religious scholars were on their way “to form a human shield between the protesters and the security forces.” The death toll in the latest clashes has risen to 35, including 31 people in Cairo and four in other cities, state-run television said Wednesday. The number of wounded is up to 3,250, according to Hisham Sheeha, spokesman for Egypt’s Health Ministry.

TT)이집트 정부는 국영 TV에서 성직자 단체가 시위대와 진압경찰 사이 인간 방패를 만들어 유혈진압을 막았다고 밝혔다. 국영 TV는 이날 이번 유혈진압으로 인한 모두 35명이 숨졌고 이중 카이로에서 31명, 다른 도시에서 4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집트 보건부의 히삼 시하 대변인은 부상자가 325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2011.11.24)

예6) CNN 보도

Reports: Benghazi now in the hands of Libyan protesters

Thousands of mourners, some carrying coffins above their heads, crowded into Benghazi streets Sunday in a funeral procession honoring those killed Saturday. The clashes occurred as the procession passed by the Alfadeel Abu Omar military camp, where one man told CNN uniformed troops opened fire on the mourners. (omission) Other nation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situation Sunday. British Foreign Secretary William Hague spoke on Sunday with Gadhafi’s son and “made clear the U.K.’s grave concern at the escalation of violence,” the Foreign Office said in a statement. “He expressed alarm at reports of large numbers of people being killed or attacked by Libyan security forces. The Foreign Secretary told Mr. Gadhafi that the Libyan government’s actions were unacceptable and would result in worldwide condemnation.”

TT)리비아 유혈사태 확산...국제사회 우려 표명

전날 있었던 군의 유혈진압으로 희생된 시위자들의 장례식에 수많은 참배객들이 참석했으며 일부는 운구 행렬에 동참했다. 장례식 행렬이 알파딜 아부 오마르 군부대 옆으로 지나던 중 시위대와 군이 충돌했다. 군이 참배객들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한 남성이 전했다. (중략)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날 리비아의 유혈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외무부는 성명에서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이 이날 카다피 원수의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해 리비아의 유혈사태가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확실히 표명했다”며 “그는 카다피 원수의 아들에게 리비아 정부군이 많은 시민을 죽

이고 공격한 내용의 보고에 대해 경고했으며 카다피 원수에게 리비아 정부의 유혈진압을 용납할 수 없는 조치였고 전 세계의 비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1.2.21)

4.2.4 ‘민주화’ 프레임

다음은 아랍의 봄 전체를 아우르는 프레임의 변화로 영어 ST에는 ‘uprising’ 이나 ‘protest’로 되어 있던 것을 ‘민주화 시위/봉기/운동’ 등의 프레임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 이 사건을 ‘민주화’ 과정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난 50년간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을 통해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에서는 이를 민주화로 보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면 예7-예10에 이르는 CNN보도 번역본 비교를 보면 ST에서는 ‘revolt’, ‘Arab Spring’, ‘movement’, ‘uprising’, ‘demonstration’, ‘revolution’ 등으로 매우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TT에서는 ST의 표현에 추가적으로, 혹은 ST의 표현을 대치하여 ‘민주화’라는 표현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다. 예11-14의 WSJ한국어판에서도 같은 번역 현상을 볼 수 있어 위의 전환과정이 한국 언론의 일반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임을 더욱 객관화 해주고 있다. WSJ의 번역은 특별히 아랍의 봄이라는 원문의 표현을 ‘민주화 운동/시위’, ‘아랍 민주화’ 등으로 번역한 것을 볼 수 있다.

예7) CNN 보도

ST) Cairo (CNN) -- Egyptian election officials sealed ballot boxes with candle wax Monday after the first day of the country's parliamentary elections. Long lines of voters streamed into polling places for the historic vote -- the first since an improbable revolt toppled one of the world's longest-serving rulers. (omission) Meanwhile, peaceful crowds gathered in Cairo's Tahrir Square, where protesters have demanded change since early this year. They overthrew Mubarak in February -- a major victory in the Arab Spring uprisings -- and are now calling for his military replacements to step aside.

TT) 이집트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28일(현지시간) 총선의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투표상자를 밀랍초로 밀봉했다. 이집트에서 일어날 것 같이 않았던 민주화 봉기가 세계적인 장기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처음으로 치르는 역사적인 투표를 위해 유권자들이 길게 줄 서서

투표소로 들어갔다. (중략) 반면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서 평화 시위가 있었다. 타흐리르 광장은 올해 초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던 곳이다. 시위대는 지난 2월 (Arab Spring uprising)아랍 민주화 봉기의 주요 승리라 할 수 있는 무바라크 정권을 붕괴시켰고 현재 군사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2011.11.29)

예8) CNN 기사

ST)However, a leading opposition figure said Sunday that the military must explain its plans in more detail or see a resumption of the demonstrations that drove Mubarak from office.

“They need to come out of their headquarters and start talking to the people and tell us what is in store for us,” ElBaradei told GPS.

And a prominent Egyptian activist credited with helping spark the revolution warned against taking too long to establish a new representative government.

TT)그러나 한 주요 야권인사는 이날 군은 더 자세히 계획을 설명하고 다시 재개된 무바라크 퇴진을 이끈 민주화 시위를 나와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지피에스에 출연해 “군은 본부 밖으로 나와 민주화 시위를 이끈 국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국민을 위해 준비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주화 시위를 촉발시켜 유명해진 한 이집트 운동가는 새 대표정부 수립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2011.2.14)

예9) CNN 기사

ST)Ambulances could be seen on video rushing in and out of the square, which served as the hub for the movement that led to the ouster nine months ago of long-time President Hosni Mubarak and is now a center for protests against Egypt’s military rulers.

TT)보도영상에 구급차량들이 타흐리르 광장을 분주하게 부상자들을 이송했다. 9개월 전 장기 집권한 호즈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민주화 봉기의 허브였던 이집트 광장은 현재 이집트 군 지도부에 대한 시위의 중심지가 됐다. (2011.11.22)

예10) CNN 기사

Arab Spring galvanizers, WikiLeaks among Nobel contenders

The Nobel is never awarded posthumously and that rule also eliminates

Mohamed Bouazizi, the unemployed college graduate whose self-immolation in Tunisia sparked a popular uprising that led to the fall of Zine al-Abidine Ben Ali's government. The Tunisian revolt began this year's so-called Arab Spring.

Tunisian blogger Lina Ben Mhenni is also on many top lists. Censored in her own country, she criticized the regime long before the uprisings began, dispersing information to the outside world.

TT)재스민 혁명 주역들, 노벨평화상 유력

노벨 위원회는 사후 수상을 하지 않으며 그 규정으로 튀니지에서 실업자 대학교 졸업자로 분신해서 모하메드 바지지도 후보에서 배제됐다. 그의 분신으로 지네 엘 아비디네 벤 알리 튀니지 전 대통령의 정권의 붕괴를 이끈 민주화 붐을 촉발시켰다. 튀니지의 민주화 붐은 올해 중동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

튀니지의 여성 블로거 리나 벤 매니도 유력한 인물 중 1명이다. 매니는 튀니지 정부의 검열을 받으면서도 민주화 붐 전부터 정부의 장기 집권을 비판하고 외부 세계에 튀니지의 소식을 전했다. (2011.10.7)

예11) WSJ 보도

ST)Race Focuses on Foreign Policy

Mr. Obama's aides said he meant there are going to be challenges as the region transforms, including the unrest in recent weeks that has included protests at U.S. embassies. (2012.9.25)

TT)미국 대선 외교정책이 승부 가른다

백악관 보좌진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리비아 미국 대사관에서 발생한 시위 등이 최근의 불안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중동 민주화 과정에 수반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12.9.26)

예12) WSJ 보도

ST)Clinton Accepts Blames for Benghazi

"I sent Chris Stevens to Benghazi at the height of the Libyan conflict [during the Arab Spring]," she said. "He was eager to go and was very effective. I recommended him as ambassador." (2012.10.16)

TT)클린턴 장관, 뱀가지 피습사건에 대한 책임인정

"아랍 민주화시위가 한창이고 리비아내전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스티븐스 대사를 뱀가지에 파견했다. 본인도 가고 싶어했고 그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내가 스티븐스를 대사직에 추천했다"라고 클린턴 장관은 말

했다. (2012.10.17)

예13)WSJ 보도

ST)Despite the tragedy, Mrs. Clinton insisted that the Obama administration's support of the Arab Spring had been appropriate as countries experienced a "burst of revolutionary energy" recently. "It would be a contortion of who we are not to support freedom," she said. "Democracy is hard. It's a never-completed journey."

(2012.10.16)

TT)클린턴 장관은 혁명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아랍의 민주화를 지지한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고 도착점도 없지만 우리는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2012.10.17)

예14) WSJ 보도

ST)Alleged Maker of Anti-Muslim Video Jailed in Fraud Case

Mr. Obama cited the uproar over the video as a lesson in the "hard work" needed in countries in North Africa where the Arab Spring uprisings since last year have felled dictatorships and installed fragile new democratic governments, some led by conservative Muslim religious-affiliated parties. (2012.9.28)

TT)반이슬람영화 제작자, 가석방위반으로 구속

오바마 대통령은 동영상을 둘러싸고 벌어진 폭력사태가 민주화 운동으로 독재자가 밀려나고 취약한 민주정부가 신설된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음을 보이는 사례라 말했다. 이들 정부 일부는 이슬람보수정당이 이끌고 있다. (2012.9.28)

ST의 프레임 중 '장기 집권 지도자', '정부군과 시민의 충돌', '시위' 등 세 가지 프레임을 TT에서 '독재자', '유혈진압', '민주화 붕괴' 등으로 바꾸면서 내러티브도 "장기 집권하던 지도자에 반대하여 일어난 시민들의 붕괴 과정에서 정부군과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지도자를 축출하였다" 에서 "독재자의 압제 하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던 시민들의 붕괴 과정에서 정부 측의 유혈 진압이 있었으나 민주화 붕괴가 성공하여 독재자는 축출되었다"라는 내러티브가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5. 결론

언어적 전환 이전에 거시적 맥락에서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권력의 역학관계가 텍스트 선정이나 인용, 구성, 형식, 내용, 표현 등 번역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데올로기 중심 관점을 가지고 내러티브 이론의 틀 안에서 ‘아랍의 봄’을 보도한 CNN뉴스 기사를 분석하였다. ST의 내러티브를 번역가가 새로운 프레임 가지고 번역했을 때 내러티브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기 위한 것이었다. 분석결과 아랍의 봄과 연관된 프레임 중, ‘장기집권 지도자’는 ‘독재자’, ‘충돌’은 ‘유혈진압’, ‘시민 봉기’는 ‘민주화’로 바뀌는 등 세 가지 중요 전환이 있었다. 즉, ST에는 지도자에 ‘장기집권’이라는 수식어 붙어 있던 것을 ‘독재자’를 추가하여 ‘새로운 이름 붙이기를 통한 프레임링’을 했고, 시민과 경찰 간의 ‘충돌’은 경찰의 무력 사용을 부각시키는 ‘선택적 전용’을 통해 ‘유혈진압’ 상황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 ST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상황이나 행위라고 표현된 부분을 ‘유혈진압’ 프레임을 사용해 원문에 없던 새로운 부분을 강조하여 드러낸 부분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아직 진행 중이며 개념 정리가 확실치 않은 아랍의 봄의 경우 민주화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TT에서는 한국적 맥락에서 모호함을 재해석해 민주화 프레임으로 규정한 것처럼 프레임 모호성(frame ambiguity)을 해결한 경우도 있었다. 종합하자면 특정 부분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약화시키며 새로운 면을 부각시키는 등의 리프레이밍을 통해 텍스트의 스토리라 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번역가들은 다양한 프레임링 방법을 통해 원문 내러티브의 특정 부분을 강화하거나 약화하여 독자들의 관점을 바꾸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할 수 있다.

분석과정 면에서 볼 때 거시적 텍스트 변환이 거의 없는 인터넷 뉴스 번역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은 ‘시간적, 공간적 리프레이밍’이나 거시적 맥락에서의 ‘선택적 전용’ 등 더 큰 텍스트적 전환을 보지 못한다는 원천적 한계도 있었다. 그러나 원문에 대한 구성적 충실성에도 불구하고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내러티브의 변환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이같은 연구의 어려움은 한 ST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TT의 쌍을 다량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는데 인터넷 뉴스 번역은 한 주제에 대해 많은 텍스트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다는 면

에서 연구절차상 장점도 있었다. 이번 연구는 정성적 방법을 택하여 내러티브가 어떻게 리프레이밍 되는 지만을 분석하였으나 더 방대한 텍스트를 모아서 정량적으로 프레임 변화를 알아보는 것도 향후 의미 있는 작업이리라 본다.

지금까지 번역학계에서는 원문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이 담긴 내러티브를 번역가나 번역을 발주하는 기관이 자신의 내러티브로 리프레이밍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의 기본 이론을 제공하는 사회과학, 특히 언론에서는 위와 같이 내러티브가 수용자 측면에서 리프레이밍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것은 진실성이나 당위성을 따지기에 앞서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구성된다는 원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원문이나 번역안의 내러티브에 대한 도덕적, 진실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베이커(2006)와 같은 학자들은 텍스트와 그것을 유포하는 자의 내러티브에 관한 논리적 일관성과 객관성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단지 본 연구와 같은 분석의 일차적인 목적은 내러티브의 리프레이밍 현상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며 이것은 원문이나 번역문의 객관성, 진실성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시 말해 본고의 ST분석에서 미국의 내러티브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 지적한다던지 TT인 한국어의 내러티브는 좀 더 이해관계가 적은 입장에서 만들어 진 중립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번역문이 주관적인 내러티브가 더 강해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내러티브가 리프레이밍 되는 현상 자체를 분석하고 이유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 언론의 보도 경향과 이와 관련된 번역의 한계점이다. 이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방송은 소위 말하는 ‘대테러전’에 있어 미국 편향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아랍 관련 뉴스에서 이런 성향이 드러난다고 한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한국의 방송 매체의 보도 성향 연구(정재철 2001)를 보면 방송을 포함한 우리 언론은 언론학자들이나 다양한 매체비평 시민단체들에 의해 미국의 대 테러전쟁에 대한 보도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과장 및 확대됐다는 비판과 함께 중립적인 시각을 상실했다는 비판 역시 받았다고 한다. 즉, 한국언론의 국제문제 외신 보도가 국익차원이건, 편리에 의한 것이건, 미국 편향적이라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한국언

론이 텍스트 선정부터 인용, 내용 정리 등에서 좀 더 주체적으로 보도를 한다면 번역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 보다 더 많은 리프레이밍과 내러티브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번역이라는 것은 특히 언론기관에서 행하는 번역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보도 지침이나 유사한 한국어 텍스트의 논조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랍권 관련 우리나라 언론 보도는 번역을 위한 텍스트 선정부터 CNN이나 BBC등을 위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사회만 외 2005), 앞으로는 더 심도 깊은 연구와 다양한 관점의 도입을 통해 텍스트 선정은 훨씬 더 다양화하고 내용에 있어도 서구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구성된 부분은 우리 상황과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할 수도 있어야 한국의 상황에 맞는 외신보도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주체적인 번역은 단지 번역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적,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내러티브 이론(Baker 2005)은 인간 행위를 규정짓는 더 큰 사회 구조적 힘과 시스템의 작동원리를 가르쳐 주며 그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큰 힘에 저항하는 방법도 알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내러티브는 지배 체계로서의 일부로 억압의 도구가 될 수도 저항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번역가 또한 자신의 번역을 억압의 도구로도 순응의 도구로도, 저항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번역을 통해 리프레이밍을 하고 내러티브를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번역의 연구 영역을 더 넓혀주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자로서 ‘살아 움직이는’ 번역가의 지위를 상승시키며 번역 방법의 선택 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이론은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지혜 (2008) 「번역에서 인용의 문제: CNN.com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9-4: 7-40.
- 도희진 (2008) 「중한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관한 소고」, 『번역학 연구』 9-3: 27-45.
- 손나경 (2008) 「다시쓰기로서의 번역: Heart of Darkness 번역본 고찰」, 『영미

어문학』 제87호: 59-75.

- 송연석 (2011) 「이데올로기가 제도적 번역에 미치는 영향 연구」, 『번역학 연구』 12-1: 145-165.
- 사회만, 공지현, 박선희, 오명근, 윤용수, 이호산 알리 답부스 (2005) 「아랍어 위성방송 알 자지라와 BBC 및 CNN방송의 비교 분석-이라크 전쟁 보도를 중심으로」, 『지중해지역연구』 7-1: 277-339.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11-3: 247-276.
- 정재철 (2001) 「미국 대테러 전쟁에 관한 텔레비전 뉴스 프레임 분석: KBS 저녁 9시 뉴스를 중심으로」, 한국 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43-359.
- Baker, Mona (2005) 'Narratives in and of Translation', *SKASE Journa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1(1): 4-13.
-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Bassnett, Susan and Harish Trivedi (eds) (1999)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Bielsa, Esperanca and Susan Bassnett (2009) *Translation in Global News*, Routledge: New York.
- Goffman, Erving (1986) *Frame Analysis: An Essay on the Organization of Experience*,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Boston.
- Kang, Ji-hae (2007) 'Recontextualization of News Discourse A Case Study of Translation of News Discourse on North Korea', in Sonia Cunico and Jeremy Munday(eds) *The Translator* 13(2): 219-242.
- Lefevere, Andre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Robinson, Douglas (1997) *Translation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ies Explained*, St. Jerome Publishing: Manchester.
- Said, Edward W. (1997) *Covering Islam*, Random House: New York.
- Somers, Margaret R. and Gloria D. Gibson (1994) 'Reclaiming the Epistemological "Other": Narrative and the Social Constitution of Identity',

- in Craig Calhoun (eds) *Social Theor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37-99.
- Tymoczko, Maria (1999) *Translation in a Postcolonial Context*, St. Jerome Publishing: Manchester UK.
- (2007) *Enlarging Translation, Empowering Translators*, St. Jerome Publishing: Manchester UK.
- Yang, Jin (2003) 'Framing the NATO air strikes on Kosovo across countries: Comparison of Chinese and US newspaper coverage', *Gazette* 65: 231-249.
www.cnn.joinsmsn.com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C%98%A4%EC%BD%98>
<http://hook.hani.co.kr/archives/24594>
<http://ceviribilim.com/?p=491>
http://en.wikipedia.org/wiki/Erving_Goffman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A0%88%EC%9D%B4%EB%B0%8D>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4/23/0503000000AKR20130423182251073.HTML>
<http://ko.wikipedia.org/wiki/%ED%94%84%EB%A0%88%EC%9D%B4%EB%B0%8D>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93790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764277
http://www.bbc.co.uk/blogs/thereporters/justinwebb/2009/06/an_interview_with_president_ob.html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2/h2011021216121521040.htm>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8/24/2007082400113.html
<http://news.donga.com/3/all/20120614/47015409/1>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01/h2013013018022122470.htm>
<http://en.wikipedia.org/wiki/CNN>
www.robincmiller.com
<http://kr.wsj.com/home-page>

[Abstract]

Reframing Political Narratives in Translation
Translated Texts of CNN News Articles on “Arab Spring”

Kim, Soon Mi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ranslation is not an innocent and transparent process taking place between two parties with equal power and common interests. In most cases, there are ideological gap, conflict of interests, and differences in value system. Because narratives are the best means to understand and make sense of the social world around us, by reframing narratives in the text, translators adjust the ideological gap or differences in values and interests in translation. Drawing on the narrative and framing theories proposed by social scientists, this paper sets out to explore how narratives are reframed in translation process.

For the analysis of texts, 34 sets of CNN news article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 on the issue of “Arab Spring”, the revolutionary movements which have swept across the Arab world since the start of 2011, are chosen. It is an ideologically charged topic where American diplomatic and political interest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Conservative Arab policy centered around the American interests, close diplomatic ties with Israel and autocratic Arab nations such as Egypt and Saudi Arabia, and importance of oil reserves in this region put the US in quite a difficult situation when pro-American autocratic leaders such as Mubarak and Gaddafi were ousted by the civil revolution. Thus, it was assumed that the narratives in the source text would be changed in the target text through reframing.

The analysis found three new frames appeared in the target text:

“dictators”, “bloody crackdown”, and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source text, the original frames were “longtime Arab leaders”, “clash between the police and protestors”, and “uprising.” By adding a new frame or replacing an existing frame with a new one, translators “suppress, accentuate, or elaborate particular aspects in a narrative encoded in the source text”(Baker 2006: 114). The main narrative in the source text was “Arab people protested against their longtime rulers. There was a clash between riot police and protesters.” Through reframing of narratives, it was changed into “Arab people staged pro-democratic movements against dictators. Bloody crackdown of riot police on protestors triggered more violence.” This kind of narrative changes in translation are reflecting the different interests and perspectiv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nstructing different perspectives for people.

▶ Key Words: media translation, translation and ideology, translation and power, framing, narratives

*부록 (ST TT 보도 기사와 번역문 제목과 날짜)

이집트 시위와 총선, 아랍의 봄 주역들 UN 평화상 후보로 (2011년 10월-11월까지) (1-9)

- 1) Polls close after first day of Egyptian elections
이집트, 독재정권 붕괴 후 ‘첫 총선’ 실시 2011.11.29
- 2) Egypt tense as elections loom
이집트 軍府 “예정대로 총선 시행” 2011.11.28
- 3) Military police try to halt Cairo skirmishes
이집트 최고 성직자, 유혈진압 중단 촉구 2011.11.24
- 4) Military leader: Egyptian elections will be held on time
이집트 군부, “조기에 권력 이양” 2011.11.23
- 5) Fresh violence erupts in Cairo, hours after Cabinet submits resignation
이집트 과도정부 사퇴...시위 진정안돼 2011.11.22
- 6) 10 dead as Egyptian protesters, security forces clash
이집트 시위대-경찰 충돌...10명 사망 2011.11.21
- 7) Syrian deserters strike military target
탈영 시리아군, 시리아 정보기관 공격 2011.11.17
- 8) At least 23 dead as Egyptian forces clash with protesters
이집트 기독교 시위대-군 충돌 2011. 10.10
- 9) Arab Spring galvanizers, WikiLeaks among Nobel contenders
재스민 혁명 주역들, 노벨평화상 유력 2011.10.7

카다피 일가 궁지에 몰림(2011.8월 21일-9월5일)(10-16)

- 10) Libyan fighters positioned outside Gadhafi strongholds
리비아 반군 “카다피측과 항복협상 결렬” 2011.9.5
- 11) From voice said to be Gadhafi, a defiant message to his foes
리비아 카다피, 항전 호소...반군, 투항기간 연장 2011.9.2
- 12) Gadhafi family members in Algeria, ambassador says

- 카다피 가족 알제리행...카다피 행방모연 2011.8.30
- 13)Pro-Gadhafi forces try to halt rebels' momentum
리비아 교전 지속...카다피 목에 현상금 2011.8.25
- 14)'The fall of the capital means the fall of the regime' -- rebel leader
리비아 반군, 카다피 관저 장악 2011.8.24
- 15)Gadhafi son reappears in Tripoli, claims father is safe
카다피 아들 체포 안돼...호텔서 목격2011.8.23
- 16)Rebel officials: Two of Gadhafi's sons arrested in Tripoli
리비아 반군, 카다피 아들 2명 생포 2011.8.21

***튀니지-이집트-리비아 시위1월17일-3월23일 (17-34)**

- 17)U.S. aviators rescued; Gadhafi remains defiant
모습 드러낸 카다피 '결사항전' 천명 2011.3.23
- 18)Libyan government forces retake Zawiya
리비아 정부군 대반격...동부도시 2곳 탈환 2011.3.11
- 19)U.S. aircraft to help return Egyptians fleeing Libya
세계 각국, 리비아 외국인 구조에 나서2011.3. 4
- 20)Deadly fighting as Gadhafi tries to retake rebel-held town
카다피, 동부 도시 탈환 나서 2011.3.3
- 21)Gadhafi's regime cites key towns in effort to regain control
리비아 반정부세력, 카다피 세력 격퇴 2011.3.2
- 22)Libyan security forces switch sides as Gadhafi hangs on
유엔, 리비아 제재결의안 의결 2011.2.28
- 23)Gadhafi blames violence on young people, drugs, al Qaeda
카다피 "시위 배후는 알카에다" 2011.2.25
- 24)Defiant Gadhafi vows to die a 'martyr'
카다피, 퇴진 거부 "순교자로 죽을 것" 2011.2.23
- 25)Libya struggles to quell spreading revolt
리비아 시위 수도로 확산...시내서 충돌 2011.2.22
- 26)Reports: Benghazi now in the hands of Libyan protesters

- 리비아 유혈사태 확산...국제사회 우려 표명 2011.2.21
27)Protests spread to Libya
중동 반정부 시위 일파만파...이란·리비아·바레인서 충돌 2011.2.17
28)Egypt's military dissolves Parliament, suspends Constitution
이집트軍, 의회 해산...헌법 효력 중지 2011.2.14
29)Egypt's Mubarak refuses to stand down
무바라크 대통령, 즉각 퇴진 거부 2011.2.12
30)Muslim Brotherhood to meet Egyptian vice president; protests continue
이집트 시위 13일째...정부·야권 대화 시작 2011.2.7.
31)Mubarak says he'll step down in September
무바라크,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 2011.2.2.
32)Mubarak's VP promises swift reform; military won't fire on protests
이집트 개헌 협상 착수...시위대 "백만인 행진" 2011.2.1
33)Fear of anarchy and looting lingers in Egypt
이집트 반정부 시위로 치안 불안 2011.1.31
34)Troops battle ex-ruler's bodyguards in Tunisia
튀니지 잇단 총격전...과도정부 윤곽 2011.1.17

김순미

숙대 영문과 조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번역비평, 번역과 문화, 번역과 이데올로기, 번역과 사회학

논문투고일: 2013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13년 6월 6일

게재확정일: 2013년 6월 16일